

# 대안적 삶의 기획

주체의 변화, 오늘을 살기

김영현 유알아트 대표

사회가 만들어 낸 형식과 틀을 유지하며 살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오늘과 미래를 규정하고 있다. 자본과 정치가 만들어 내는 구조적 모순은 정책과 행정을 통해서 현장을 규제한다. 너무나 단단한 철옹성이 되어가는 권력으로 나타나는 관습과 이해하기 힘든 상식들이 되어버린 규범들은 미래를 묶어 놓는다. 이 속에서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돌파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한다. 오늘을 살아 갈 힘이 필요하다. 단지 내일을 위해 존재하는 과거와 오늘은, 버겁게 오늘을 버티게 한다. 그게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가 되고 있다. 무작정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게 당연시 된다. 오늘은 이미 과거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늘 과거와 내일 사이에만 존재한다.

이제 나를 살기 위한 작은 움직임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다. 나와 내 일상, 일, 문화, 놀이와 관계등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내 삶의 태도와 문화를 만들어 가는 다른 경로를 설계하고 실천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가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이 필요한 시대다.

대안적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을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출발선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으나 나를 형성해온 많은 시간들이 현재와 미래의 나를 지배 한다. 여기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오늘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 시작 한다는 것은 자신감과 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다양한 다른 삶의 선택지들에 대한 사례와 의미를 공유해 가는 과정에서 가치를 발견 해 내고 자기 시선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를 바라보고 표현하는데 주저함을 떨쳐 내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다른 길을 선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선택한 이유나 환경 조건들에 대해 고민해 보고, 선택이 아닌 포기해야 할 것들에 대한 자기 추적이 필요하다. 내 인생의 포기리스트가 만들어지면 내가 선택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올 것을 기대한다. 이런 과정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례와 이론들을 찾고 만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안적 삶의 기획> 과정을 통해서 생각과 경험의 공유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자기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스스로 정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다.

## 내 인생의 포기 리스트 만들기 - ‘버림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이들의 경계를 세우는 것이다.

나는 살아오면서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 왔는가?

포기할 수 있는 것

포기해야할 것

누군가를 포기시켜야 하는 것들

‘버림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것’ 버리고 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채 너무 많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놓치는 것들은 없는지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오늘을 살펴봐야 한다. 우리의 오늘은 하고 싶은 것은 이상으로만 존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형식적 필요에 의해서 구비되고, 해야 하는 일들의 무덤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경계를 만들어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리스트가 만들어 지면 선택 지점의 확장과 자기 생각 정리는 자연스럽게 넓어 질 것이다.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내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포기리스트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자기를 바라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 혹시 내가 포기 하고 있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왜 포기 하게 되었던가? 정작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포기해야 했었나? 아님 지금이라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는 무엇을 포기 하면 되는가? 결국 나는 포기 할 수 있는가? 계속 되는 자기 질문이 자기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작은도서관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미 다른 결의 삶에 대한 욕구와 자기 실천 현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자기 지향을 만들어 가는가에서 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활동하는 작은도서관에서 대단한 것을 주거나 명예가 있는 것도 아는데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안에서 다양한 욕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욕구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와 같이 하는 멤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는 가를 생각해 봐야한다. 작은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지고 활동에 대해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작은도서관과 나의 정체성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

작은도서관이 이제는 지역 안에서 자기 역할의 필요성과 응원군들을 충분히 만들어 내면서 지역 활동의 거점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은 많은 개념과 철학의 보고이자 학습욕구의 총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 가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 활동을 하며 우리가 의지하고 같이하는 사람들 끼리만의 벽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2. 관계를 만들어내는 공간(도서관)의 주인공은 누구이며 누구여야 하는가?

3.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아가고 있는가?
4. 우리가 어디로 가는 지에 대해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 가야 하는가?
5. 무엇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인지? 현재의 비전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6. 지역의 변화와 내 역할의 변화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지?
7. 아이들의 성장과 나의 역할의 변화는 어떤 역할로 전환을 요구 하는가?
8. 작은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9. 우리는 지역으로 문을 활짝 열어 둘 수 있는가?
10. 전혀 다른 도서관의 모습을 상상하고 바꾸어 나갈 수는 있는가?

아마도 더 많은 질문들이 필요 할 것이다. 질문을 만든다는 것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일 것이다. 질문 만들기를 즐겁게 하는 시간이 우선 일 것이다. 질문에 상호작용의 원리를 더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찾아지는 답이 우리가 선택하는 미래가 될 것이다. 그 미래에는 모든 이의 역할에 의미나 가치가 부여된다. 또한 그곳에서의 새로운 경험들이 쌓여 새로운 가치와 관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와 가치는 문화가 되고 그 문화는 지역이 협의하고 동의하는 양해의 공간을 거쳐 자기 정체성이 된다. 예술적 감성이 만들어지는 마을에서 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